

아르헨티나의 경제개혁 내용과 리튬 산업에 대한 시사점

박미숙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전문연구원 (misookp@kiep.go.kr, 044-414-1105)



차 례

1. 신정부 경제개혁의 배경과 주요 내용
2. 아르헨티나 리튬 산업에 미친 경제개혁의 영향
3. 시사점

주요 내용

- ▶ 2023년 12월 취임한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현재의 경제난을 야기했다'는 판단하에,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시장 중심의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함.
 - 아르헨티나는 만성적인 외환 부족으로 인해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상태로, 연 211%의 물가상승과 폐소화 가치 급락 등의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빈곤층 인구가 약 57%까지 급증함.
 -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가격 및 공급량 통제 철폐, 민영화, 수출세 조정, 산업의 규제 및 특혜 철폐, 광업규정 완화, 통관 완화, 환경규정 완화, 정부권한 강화 등임.
 - 신정부의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가능한바, 비상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긴급법령(DNU)'을 공포하여 기존 법률을 즉시 대체하였고, 긴급법령으로 다룰 수 없는 사안은 기존의 법안을 개정하도록 '옴니버스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하원에서 부결되어 새 법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임.
- ▶ 아르헨티나의 리튬 산업은 이미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을 갖추었으므로 개혁안에서 리튬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통관 완화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RIGI)'와 같이 산업 전반에 취해지는 조치는 리튬 투자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함.
 - 다른 중남미 리튬 보유국에서 리튬을 국유화하거나 국영기업과 합작하도록 정책을 조정하는 데 비해 아르헨티나는 민간 주도의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국유화 가능성도 낮아, 중남미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긴급법령] 수출·수입 업자 등록의무 폐지, 통관 전산화, 신규 수입관세 부과 금지 등의 조치는 리튬 투자기업의 수출입 관련 무역장벽을 낮추며, 가격 통제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 [옴니버스 법안] 리튬 수출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4.5%로 유지되며, RIGI가 채택될 경우 투자 기업이 조세·수출입·외환사용 등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겠으나, 정부가 수정 법안을 새로 제출해야 하므로 개혁 내용이 초안과 달라질 수 있음.
- ▶ 개혁에 대한 반발로 긴급법령이 중단되거나 법안 개정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개혁에 따른 규제 완화는 우리 기업이 리튬·전기차 공급망의 상류부문 진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에 리튬 생산공장을 건설하면서 우리 기업이 리튬 공급망의 상류부문에 진출함.
 - 규제 철폐와 완화가 어느 수준에서 완성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신정부 개혁은 리튬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므로 우리 기업 진출에 우호적으로 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여소야대의 상·하원 구성으로 인해 연방정부가 개혁에 어려움을 겪지만, 리튬 개발과 투자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리튬 개발에 관심을 갖는 기업은 주정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1. 신정부 경제개혁의 배경과 주요 내용

■ 아르헨티나는 만성적인 외환 부족으로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상태로, 연 211%의 물가상승과 폐소화 가치 급락 등의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약 57%까지 급증함.¹⁾

- 외환 부족은 아르헨티나의 만성적인 문제로 2020년에 아홉 번째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바 있고, 2023년 말 기준 외환보유고는 약 265억 달러(총외채의 10%)에 불과하며, IMF에서 44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음.²⁾

- 역대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환 부족이나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명목으로 외환 통제, 생필품 가격 통제, 수출입 통제 등을 시행하여 경제 전 분야를 규제해옴.

○ [외환 통제] 외환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의 외환구매 상한액 설정이나 해외송금 시 사전허가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해 달러 공급을 제한하였지만,³⁾ 민간에서는 폐소 대신 달러를 보유하려는 수요가 높아 암시장에서 달러 거래가 일반화되었고, 공식과 비공식 환율 간 격차가 벌어짐.

○ [수입 통제] 외환 유출 방지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약 1,500개 품목(기계류, 자동차 및 부품, 섬유, 가전 등)을 지정하여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도록 함.

○ [수출 통제] 수출을 내수로 전환하여 물가를 낮추고자 주요 수출품에 세금(서비스 5%, 대두 33%, 산업재 5%, 기타 제품 15%)을 부과함.⁴⁾

○ [가격 통제] 정부가 생산자 및 유통업자와 협상하여 생필품의 가격 상한을 정하는 프로그램(Precios Cuidado)을 실시하고, 생필품 가격과 공급물량을 모니터링하는 법안(Ley del Observatorio de Precios)을 시행함.

-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자국 기업의 비즈니스와 외국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그림 1.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



그림 2. 환율

(단위: 페소/달러)



자료: EIU, 'The EIU View'(검색일: 2024. 2. 13.).

자료: Ámbito Financiero, 'Dolar'(검색일: 2024. 1. 30.).

1) "Inflación en aumento e ingresos estancados: un estudio de la UCA estimó que la pobreza superó el 57% de la población en enero"(2024. 2. 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2. 20.).

2) "The nightmare economic in-tray awaiting Argentina's Javier Milei"(2023. 12.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2. 13.).

3) "A Guide to Argentina's Foreign Exchange Regulations"(2023. 4. 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2. 13.).

4) "Argentina: Exportint products"(20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2. 13.).

- 2023년 12월 10일 취임한 밀레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의 지나친 경제 개입과 재정적자가 경제난을 초래했다’고 판단하여, ‘긴급법령’ 발효와 ‘옴니버스 법안’ 개정으로 시장 중심의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함.
 - 정부의 가격 및 공급량 통제 철폐, 민영화, 수출세 조성, 일부 산업의 규제 및 특혜 철폐, 광업규정 완화, 통관 완화, 환경규정 완화, 정부권한 강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추진함.
 - 대선에서 ‘법정통화로 달러 채택’이나 ‘중앙은행 폐쇄’와 같은 정책을 공약하였으나, 아직 실행하지 않음.
 - 신정부의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가능한바, ‘긴급법령(DNU)’⁵⁾을 공포하여 기존 법률을 즉시 대체하거나, 긴급법령으로 다룰 수 없는 사안은 기존의 법안을 개정하도록 ‘옴니버스 법안’을 제출함.
 - 긴급법령은 2023년 12월 29일 발효되었으며, 법안 개정은 2024년 2월 하원에서 부결되어 새 법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임.⁶⁾

표 1. 긴급법령(DNU)과 옴니버스 법안의 주요 내용

구분	긴급법령 ⁷⁾	옴니버스 법안 ⁸⁾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공급·산업 규제 철폐 및 완화 생필품의 가격상한과 공급량을 지정했던 공급법 폐지, 자국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 공공조달법 폐지, 특정 산업에 특혜를 제공하던 산업진흥법 폐지, 특정 유통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던 무역촉진법 폐지, 달러를 사용한 부동산 계약을 금지하던 임대차법 폐지, 와인 규제법/설탕규제법/올리브오일규제법/면화규제법 폐지 등 • 광업규정 완화 광업 기업의 생산에 관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던 국가 광물거래 시스템과 국가 광물정보은행 폐지 • 통관 완화 수출·수입 업자 등록의무 폐지, 통관 전산화 의무, 행정부의 수출입 금지조치 시행 불허, 행정부의 신규 수입관세 부과 금지 등⁹⁾ • 민영화 공기업 설립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공기업을 일반유한회사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화 27개 공기업 민영화 •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RIGI) 대규모 투자 기업에 법인세 최소세율인 25% 적용,¹⁰⁾ 자본재·부품의 수입관세 면제, RIGI 적용 3년 후 수출세 면제, 수출입 제한조치 금지, 외환사용에 관한 규제 미적용 등¹¹⁾ 혜택 • 수출세 조정 대부분의 품목 수출세는 15% 적용, 대두박(大豆粕) 수출세는 31%에서 33%로 인상, 추후 수출세 인상 시 15%를 상한으로 지정 • 환경규정 완화 생산 활동을 위한 산림 방화 허용, 남부 빙하 주변지역에서 광물 탐사활동 허가 • 정부권한 강화 2024년 12월까지 국회의 입법권한을 행정부에 이양, 재정에 관한 국회의 감시기능 축소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2. 29~2025. 12. 31. 발효 • 상·하원 모두 과반 반대하거나, 대법원이 헌 상황을 헌법이 규정한 ‘긴급하고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결하면 시행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2월 하원 투표에서 부결 • 정부가 새 법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추후 내용 변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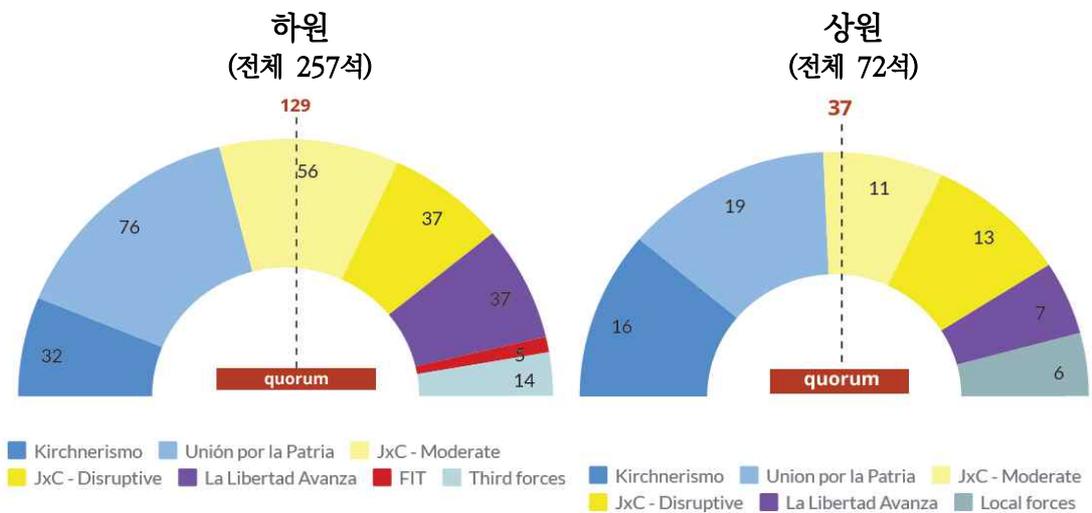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5) 국가가 예외적이고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입법과정을 거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공포하여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법안으로, 2023년 12월 29일 발효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됨. 그러나 국회의 표결과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시행이 중단될 수 있음.
 6) 헌법이 조세·형법·선거정당 등은 DNU로 다룰 수 없도록 하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개정 법안을 작성해 2023년 12월 20일 국회에 제출함. 그러나 소수 여당인 La Libertad Avanza(하원의 14%, 상원의 10%)가 주정부 재정지원을 두고 중도우파 야당과 갈등을 빚었고, 중도우파가 옴니버스 법안에 대한 입장을 지지에서 반대로 선회함에 따라, 2월 하원 투표에서 법안이 부결됨.
 7) 아르헨티나 정부(2023), “Decreto DNU 70/20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2. 15.).
 8) Poder Ejecutivo Nacional(2023).
 9) “Tax aspects of Decree 70/2023”(2023. 12. 2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2. 15.).

- 긴급법령(DNU)은 현재 시행 중이지만 국회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안 개정은 초안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개혁이 어느 수준에서 완성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 [긴급법령] 상원과 하원이 모두 과반 반대하거나, 대법원에서 긴급법령이 발효된 현재 상황을 헌법에서 규정한 ‘긴급하고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결할 경우 시행이 중단됨.¹²⁾
- [법안 개정] 2월 하원에서 옴니버스 법안을 1차 표결에 부치기에 앞서 정부는 야당과 국민의 반대를 반영해 법안을 664개 조항에서 224개로 대폭 축소하였음에도¹³⁾ 법안이 부결되어 정부가 새 법안을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여당 La Libertad Avanza의 의석수는 하원 37석(하원의 14%)과 상원 7석(상원의 10%)에 불과해 중도우파 정당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

그림 3. 아르헨티나 상·하원의 정당별 의석 수(2023~25년)

(단위: 개)



자료: Directorio Legislativo(2023), p. 7.

10) 아르헨티나의 법인세는 과세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25%, 30%, 35%로 차등 적용되는데, RIGI는 기존 법인세의 최소세율인 25%를 적용하였고, 이는 주변국의 법인세가 칠레 27%, 브라질 34%, 페루 29.5% 등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임.

11) "Argentine Executive Branch sent bill to Congress that includes new Incentive Regime for Large Investments"(2024. 1.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2. 21.).

12) 대법원은 2024년 2월 이후 검토할 예정임. "Argentina's Supreme Court to review Milei's decree in February"(2023. 12. 3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2. 23.).

13) "Ley Omnibus: ¿Qué significa aprobar "en general" la reforma de Milei y cómo pasó de 600 a 224 artículos?"(2024. 2.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2. 15.).

2. 아르헨티나 리튬 산업에 미친 경제개혁의 영향

- 아르헨티나는 리튬 매장량에서 세계 3위(12.9%)와 생산량 4위(5.3%)를 차지하며(표 2 참고), 중남미에서 가장 기업친화적인 리튬 투자환경을 제공해 외국 기업의 투자 진출이 활발함.
 -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에는 전 세계 리튬의 절반 정도 매장되어 있어 ‘리튬 삼각지역’이라고 불리는 데, 특히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리튬의 순도가 높고 생산 단가가 낮음.
 - 리튬 삼각지역에는 리튬이 소금물에 녹아 있기 때문에 수분을 증발시켜 리튬을 추출하는데,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리튬은 건조한 사막 지역에 매장되어 있어 수분 증발이 쉬워 생산단가가 낮음.
 -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으로 인해 미국·호주·중국·프랑스 등의 기업이 진출하였으며, 한국의 포스코홀딩스도 리튬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음(표 3 참고).

표 2. 리튬 매장량, 자원량, 생산량(2023년)

매장량(천 톤)			자원량(천 톤)			생산량(톤)		
칠레	9,300	33.2%	볼리비아	23,000	21.9%	호주	86,000	47.8%
호주	6,200	22.1%	아르헨티나	22,000	21.0%	칠레	44,000	24.4%
아르헨티나	3,600	12.9%	칠레	11,000	10.5%	중국	33,000	18.3%
중국	3,000	10.7%	미국	14,000	13.3%	아르헨티나	9,600	5.3%
미국	1,100	3.9%	호주	8,700	8.3%	브라질	4,900	2.7%
캐나다	930	3.3%	중국	6,800	6.5%	캐나다	3,400	0.0%
브라질	390	1.4%	독일	3,800	3.6%	짐바브웨	380	0.0%
전 세계	28,000	100%	전 세계	105,000	100%	전 세계	180,000	100%

주: 매장량(Reserve)은 기술과 경제성 측면에서 현재 추출 및 생산 가능한 양이고, 자원량(Resource)은 현재는 생산이 불가능하지만 미래의 기술과 자본으로 생산 가능한 양까지 포함한 부존량임.

자료: U.S.Geological Survey(2024), p. 2.

- 중남미 내 다른 리튬 보유국에서는 정부가 리튬 개발을 주도하도록 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나, 아르헨티나는 민간 주도의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국유화 가능성도 낮아, 외국 기업이 투자를 선호함.
 - 칠레는 2023년 4월 ‘국가리튬전략’에서 향후 리튬 개발을 민관협력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볼리비아는 2017년 리튬을 국유화하였으며, 멕시코는 2022년 4월에 국유화함.
 - 아르헨티나는 로열티가 3%로 칠레(6~40%)에 비해 낮고, 국내외 민간 기업의 100% 지분투자를 허용함.
 - 아르헨티나 헌법은 리튬과 같은 천연자원의 소유권을 연방정부가 아닌 매장된 지역의 주정부가 갖도록 하는데, 연방정부가 리튬을 국유화하려면 헌법을 개정하여 리튬 소유권을 연방정부로 이전해야 하나, 국회의원 다수가 주정부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의 가능성이 낮음.
 - 또한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정부의 경제 개입 최소화와 시장의 자율성 보장’이기 때문에, 리튬 국유화는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상반되어 국유화 가능성이 희박함.

표 3. 외국 기업의 대중남미 리튬 투자 현황

국가	투자기업(국가)	프로젝트명	단계	규모 (톤/연)
아르헨티나	Allkem(호주)	Sal de Vida	건설 중	32,000
	Ganfeng Lithium(중국), Lithium Americas(캐나다)	Cauchari-Olaroz	증설	현재 40,000 추가 20,000
	Zijin Mining(중국)	Tres Quebradas	건설 중	20,000
	Lithium America(캐나다)	Pastos Grandes	타당성	24,000
	Allkem(호주) Toyota(일본)	Olaroz	증설	42,500
	NRG Metals(캐나다)	Hombre Muerto North	경제성 평가	5,000
	Ganfeng Lithium(중국)	Mariana	건설 중	20,000
	Argosy Minerals(호주)	Rincon	경제성 평가	10,000
	Lake Resources(호주)	Kachi(Catamarca)	사전타당성	50,000
	Livent(미국)	Hombre Muerto	증설	현재 20,000 추가 80,000
	Rio Tinto(영국)	Rincon	타당성	25,000
	Eramet(프랑스) Tsingshan(중국)	Centenario-Ratones	건설 중	54,000
	POSCO(한국)	Sal de Oro	건설 중	25,000
	Galan Lithium Limited(호주)	Candelas	경제성 평가	14,000
브라질	Sigma Lithium(캐나다)	Grota do Cirilo	건설 중	36,700
	AMG Lithium(독일)	Mibra	증설	13,500
칠레	Albermarle(미국)	Salar de Atacama	생산 중	비공개
	Albemarle(미국)	La Negra	증설	추가 42,500
	Lithium Power International(호주)	Maricunga	환경허가 취득	15,000
	SQM(중국 텐치리튬 지분 24%)	Salar del carmen	증설	추가 30,000
멕시코	Ganfeng Lithium(중국)	Sonora	건설 중	17,500
페루	Plateau Energy Metals(캐나다)	Falchani Lithium	경제성 평가	23,000

자료: FitchSolutions(2022), pp. 48-51; ECLAC(2023), pp. 42-43.

■ 현재 우리나라는 글로벌 업체에서 생산한 리튬을 수입하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인수하고 탄산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여 리튬 공급망의 상류부문에 진출함.

- 한국 내 전기차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리튬 사용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리튬의 64%를 중국에서, 31%를 칠레에서 수입하고 있음.¹⁴⁾
- 리튬은 글로벌 상위 6개 기업이 전체의 약 57%를 생산하고 있는 과점시장인데, 포스코홀딩스는 2018년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인수하고 2022년에 연간 2만 5,000톤의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공장 건설에 착공함으로써 리튬 및 전기차 공급망의 상류부문에 진출함.¹⁵⁾
- 한국의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자회사에서 생산한 탄산리튬을 한국으로 수입하여 국내 자회사에서 배터리용 양극재로 가공할 예정임.

14) 「수산화리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20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2. 20.).

15) 「포스코홀딩스, 아르헨티나에 염수 리튬 2단계 상공정 착공」(2023. 7.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2. 20.).

■ 아르헨티나의 리튬 산업은 이미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을 갖추어서 신정부 개혁안에서 리튬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통관 완화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RIGI)'와 같이 산업 전반에 취해지는 조치는 리튬 기업의 사업 환경을 더욱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

- 옴니버스 법안에 광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석유·가스가 개혁 대상이며, 광업부문 개혁에서 리튬은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음.
 - 신정부는 경제개혁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여 그간 투자가 저조했던 구리와 같은 광물에 국내외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며, 리튬에 관한 별도의 개혁안은 마련하지 않음.¹⁶⁾
- 옴니버스 법안에 포함된 수출세 조정에서 리튬의 수출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4.5%로 유지됨.
- 긴급법령(DNU)의 수출·수입 업자 등록의무 폐지, 통관 전산화, 신규 수입관세 부과 금지 등의 조치는 리튬 투자 기업의 수출입 관련 무역장벽을 낮추며, 가격 통제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 옴니버스 법안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RIGI)'가 채택될 경우 투자 기업이 조세, 수출입, 외환 사용 등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음.
 - 그러나 옴니버스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되어 정부가 수정 법안을 새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개혁 내용이 초안과 달라질 수 있음.

■ 개혁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리튬 산업에 대한 신정부의 입장은 외국 기업 투자유치에 더욱 우호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임.

- 밀레이 대통령은 리튬 공급망 부문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¹⁷⁾
- 2024년 2월 밀레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중, 이스라엘 리튬 기업인 XtraLit는 아르헨티나산 리튬에 약 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함.¹⁸⁾

■ 외국인투자자와 시장은 아르헨티나의 경제개혁이 투자환경 개선에 긍정적이라고 반응

- 신정부가 정부의 경제개입을 최소화하는 경제개혁안을 발표한 2023년 12월 말에 아르헨티나의 국채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장이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¹⁹⁾ 반대로 옴니버스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된 2024년 2월 8일에는 국채 가력이 하락²⁰⁾하여 개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을 드러냄.
- 이스라엘 리튬 기업 XtraLit가 경제개혁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신규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도 아르헨티나의 개혁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16) "Milei Takes the Helm in Argentina While Mining Remains in the Background, an Industrial Info News Alert"(2024. 1. 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2. 21.).

17) "Litio, el oro blanco que Javier Milei quiere rifar con un guiño a Elon Musk"(2023. 12. 2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2. 20.).

18) "Javier Milei se trajo del viaje la primera inversión de Israel en litio"(2024. 2. 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2. 20.).

19) "Argentina Bonds Inch Higher on Milei's Sweeping Reform Plans"(2023. 12. 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2. 21.).

20) "Argentina Bonds Slump as Milei Reforms Go Back to Square One"(2023. 2.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2. 20.).

3. 시사점

■ 아르헨티나의 과도한 시장보호 조치로 인해 리튬을 제외하면 우리 기업의 투자와 수출이 저조하나, 개혁으로 경제가 안정된다면 향후 비즈니스 환경 개선으로 우리 기업이 투자에 관심을 높일 가능성은 있음.

- 2001년 아르헨티나의 외환위기로 우리 기업은 현지법인 투자를 대거 철수하였고, 2010년대 들어 아르헨티나 정부의 외환 통제와 자국 산업 보호조치가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관심이 낮아져 현재 투자기업은 8개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판매 및 서비스 법인임.
- 신정부의 개혁조치는 그간 외국 기업의 투자를 기피하게 만든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환경이 개선된다면 기업이 투자에 관심을 높일 가능성은 있음.

■ 개혁 추진과정에서 아르헨티나가 단기적으로 사회적 혼란을 겪을 수 있지만, 개혁이 가져오는 경제 전반의 규제 완화는 중장기적으로 리튬 투자환경을 개선하므로, 신정부 개혁은 우리 기업이 리튬 및 전기차 공급망의 상류부문에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개혁 반대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입법과정에서 개혁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는 불확실성도 있으므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환경 개선을 기대해야 함.
- 우리나라는 전기차 소재부터 배터리 및 완성차까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 전기차 공급망의 중류 및 하류 부문에서 입지가 강하지만, 리튬은 글로벌 생산업체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전기차 공급망의 상류부문에서는 입지가 약했음.
- 그러나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인수하고 리튬 생산공장을 건설하면서 공급망의 상류부문에 진출하는 성과를 이룬 바 있음.
- 아르헨티나는 리튬 매장량이 많으면서도 중남미 다른 국가와 달리 민간이 리튬 생산을 주도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신정부 개혁이 리튬 투자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때문에, 향후 우리 기업이 리튬 및 전기차 공급망의 상류부문 진출을 확대하는 데 우호적인 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여소야대의 상·하원 구성으로 인해 연방정부가 경제개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리튬 개발과 투자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리튬 개발에 관심을 가진 기업은 주정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면서 리튬이 단기적으로 초과 공급되어 리튬 가격은 2022년 말 최고치를 기록한 후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이에 주요 업체들은 일시적으로 생산을 줄이거나 투자를 지연하기도 함.²¹⁾
- 비록 단기적으로 리튬 가격 하락과 생산 및 투자의 축소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21) "Why Lithium Prices are Plunging and What to Expect"(2024. 2.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2. 29.).

- 또한 리튬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핵심광물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리튬을 직접 채굴하고 생산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핵심광물을 조달한다는 전략적 중요성도 있음.
- 따라서 우리 기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늘어나는 리튬 수요와 안정적인 리튬 조달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아르헨티나를 투자처로 고려하는 기업은 주정부와 관계를 강화하여 중장기적인 투자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음. **KIEP**

참고문헌

[영문 및 서문 자료]

- Poder Ejecutivo Nacional. 2023. "Ley de Bases y Puntos de Partida para la Libertad de los Argentinos."
- U.S.Geological Survey. 2024. "Mineral Commodity Summaries, January 2024: Lithium."
- FitchSolutions. 2022. "Lithium: Keeping and ion global trends, risks, opportunities in a supercharged market."
- ECLAC. 2023. "Lithium extraction and industrializati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
- Directorio Legislativo. 2023. "Javier Milei elected president of Argentina."

[온라인 자료]

- 하이투자증권. 2023. 「수산화리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https://m.hi-ib.com:442/upload/R_E09/2023/01/\[25064539\]_230153.pdf](https://m.hi-ib.com:442/upload/R_E09/2023/01/[25064539]_230153.pdf)(검색일: 2024. 2. 20.).
- 아르헨티나정부. 2023. "Decreto DNU 70/2023." <https://www.argentina.gob.ar/normativa/nacional/decreto-70-2023-395521/texto>(검색일: 2024. 2. 15.).
- Ámbito Financiero. 'Dolar.' <http://ambito.com>(검색일: 2024. 1. 30.).
- EIU. 'The EIU View.' <http://viewpoint.eiu.com>(검색일:2024. 2. 13.).
- 「포스코홀딩스, 아르헨티나에 염수 리튬 2단계 상공정 착공」. 2023. *POSCO Newswoom*. (July 3). <https://newsroom.posco.com/kr/포스코홀딩스-아르헨티나에-염수-리튬-2단계-상공정>(검색일: 2024. 2. 20.).
- "A Guide to Argentina's Foreign Exchange Regulations." 2023. *CG Group*. (April 10). <https://www.cgcasgroup.ca/market-updates/argentina-imf-reserve-target-mjda5>(검색일: 2024. 2. 13.).
- "Argentina Bonds Inch Higher on Milei's Sweeping Reform Plans." 2023. *BNN Bloomberg*. (December 21). <https://www.bnnbloomberg.ca/argentina-bonds-inch-higher-on-milei-s-sweeping-reform-plans-1.2014616>(검색일: 2024. 2. 21.).
- "Argentina Bonds Slump as Milei Reforms Go Back to Square One." 2023. *Bloomberg Law*. (February 8). <https://news.bloomberglaw.com/bankruptcy-law/argentina-bonds-dip-as-mileis-reforms-sent-back-to-square-one>(검색일: 2024. 2. 20.).
- "Argentine Executive Branch sent bill to Congress that includes new Incentive Regime for Large Investments." 2024. *EY*. (January 5). https://www.ey.com/en_gl/tax-alerts/argentine-executive-branch-sent-bill-to-congress-that-includes-n(검색일: 2024. 2. 21.).
- "Argentina: Exportint products." 2023. *Santander*. <https://santandertrade.com/en/portal/international-shipments/argentina/exporting-products>(검색일: 2024. 2. 13.).
- "Argentina's Supreme Court to review Milei's decree in February." 2024. *MercoPress*. (December 30). <https://en.mercopress.com/2023/12/30/argentina-s-supreme-court-to-review-milei-s-decree-in-february>(검색일: 2024. 2. 23.).

- “Inflación en aumento e ingresos estancados: un estudio de la UCA estimó que la pobreza superó el 57% de la población en ener.” 2024. *Infobae*. (February 17). <https://www.infobae.com/economia/2024/02/17/segun-un-estudio-privado-la-pobreza-ya-bordea-el-47-de-la-poblacion/>(검색일: 2024. 2. 20.).
- “Javier Milei se trajo del viaje la primera inversión de Israel en litio.” 2024. *Clarín*. (February 10). https://www.clarin.com/economia/javier-milei-trajo-viaje-primera-inversion-israel-litio_0_IKbrAAGfcu.html(검색일: 2024. 2. 20.).
- “Ley Ómnibus: ¿Qué significa aprobar “en general” la reforma de Milei y cómo pasó de 600 a 224 artículos?” 2024. *El Comercio*. (February 4). <https://elcomercio.pe/mundo/latinoamerica/argentina-ley-omnibus-que-significa-aprobar-en-general-la-reforma-de-milei-y-como-paso-de-600-a-224-articulos-noticia/?ref=ecr>(검색일: 2024. 2. 15.).
- “Litio, el oro blanco que Javier Milei quiere rifar con un guiño a Elon Musk.” 2023. *Página12*. (December 26). <https://www.pagina12.com.ar/698565-litio-el-oro-blanco-que-javier-milei-quiere-rifar-con-un-gui>(검색일: 2024. 2. 20.).
- “Milei no consigue el respaldo de la Cámara de Diputados de Argentina a su ‘ley omnibus’.” 2024. *Expansión*. (February 7). <https://www.expansion.com/latinoamerica/2024/02/07/65c32888e5fde a93298b459a.html>(검색일: 2024. 2. 20.).
- “Milei Takes the Helm in Argentina While Mining Remains in the Background, an Industrial Info News Alert.” 2024. *Business Wire*. (January 22).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240122180144/en/Milei-Takes-the-Helm-in-Arentina-While-Mining-Remains-in-the-Background-an-Industrial-Info-News-Alert>(검색일: 2024. 2. 21.).
- “Tax aspects of Decree 70/2023.” 2023. *Allende*. (December 27). <https://allende.com/en/tax-measures-and-moratorium/tax-aspects-of-decree-70-2023-12-27-2023/>(검색일: 2024. 2. 15.).
- “The nightmare economic in-tray awaiting Argentina’s Javier Milei.” 2023. *Financial Times*. (December 8). <https://www.ft.com/content/4213be36-a122-4649-9214-4e763b098dc7>(검색일: 2024. 2. 13.).
- “Why Lithium Prices are Plunging and What to Expect.” 2024. *Carbon Credits*. (February 8). <https://carboncredits.com/why-lithium-prices-are-plunging-and-what-to-expect/>(검색일: 2024. 2. 29.).